

광주에 국내 반도체산업 전문가들 '총집결'

마이크로전자·패키징 학술대회 개막 차세대 첨단반도체·패키징기술 논의 "인공지능 기술 육성 산학연 협력"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여 첨단반도체 패키징, 소부장 등 미래기술과 발전방향을 공유한다.

광주시는 3일부터 4일까지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2024 정기 학술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설립된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는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관련 분야 선진회사·대학·연구소 간 학술, 기술교류, 정보교환 활동 등을 위해 해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는 반도체 육성사업, 연구기관 반도체 생산시설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소개하고 반도체산업 육성 범업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주로 수도권에서 열린 학술대회를 지난해 유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첨단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시장 변화를 이끌어가는 국내 전문가와 지역 산·학·연 전문가, 학생 등 400여명이 참여해 '차세대 첨단 반도체/전자 패키징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반도체 및 전자 패키징 전반에 대한 발표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종집적, 칩렛 등 차세대 첨단 패키징 기술에 대한 연구동향을 공유한다.

먼저 이날 광주테크노파크 김상민 팀장은 '광주반도체 육성사업'을 소개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에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했다. 김대우 삼성전자 상무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반도체 부가가치를 높일 차세대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과 고성능 반도체를 구현할 미래 기술을 소개하고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학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손호영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인공지능(AI) 메모리로 자리매김한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에 대한 회사 경쟁력과 현재 준비하고 있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서울과학기술대·한양대·KAIST 등 대학과 생산기술연구원·재료연구원·나노기술원 등 연구기관, LG전자·현대모비스·대덕전자·랩서치코리아 등 산업계가 40여개의 세션에 참여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을 공유하고 시장 대응법을 공유했다.

이어 4일에는 지역대학 석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발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지역에 위치한 연구기관 반도체 생산 펌웨어 현장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는 첨단 패키징 분야를 중심으로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첨단 패키징 기술 육성을 위해 산학연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김영록 "국립의대 공모, 공정·원활하게 추진"

"시급한 현안...절체절명 상황" 영암 초고속도로 추진 만전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는 3일 "국립의과대학 공모 추진은, 전 도민의 의과대학이자 전 도민의 건강을 위해 이뤄지는 만큼 도민 뜻을 잘 살피고 협조를 구해 대승적 차원에서 공정하고 원활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4월 정례회를 통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국립의대 신설 등 10가지 이상 지역 현안을 직접 말씀하셔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의과대학 공모와 관련해 "당초 통합의대를 생각했는데, 대학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빨리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전 도민의 건강과 전남의 미래발전, 의료 관련 연구개발(R&D)사업 유치 등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함께 많이 고심해서 추진, 모처럼의 기회를 잘 활용하자"고 말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와 관련해선 "신개념 고속도로로서 앞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역할도 기대된다"며 "도에서 기초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언급

으로 국토부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속도로를 목표까지 연결하고, 종착지에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테마파크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선 고속철도에 대해선 "중앙부처에서 자꾸 고속화철도를 언급하는데, 대통령께서 고속철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30분 이상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직선화를 관철해 명실상부한 고속철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아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박간재 기자

전남도, 현장 중심 청렴시책으로 청렴도 높인다

전남도는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확대 등 현장 중심의 '2024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반부패·청렴추진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고객만족 강화 △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통

제 강화 △청렴문화 확산 및 대외협력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 등 총 4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청렴도 취약 분야인 외부 제감도 향상을 위해 도민에게 더 다가가고, 제감하는 현장 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세부 추진 시책으로는 감사관실 공무원이 부패 위험이 있는 공사·용역 및 보조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확대 실시한다. 또 외부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중 불편사항 및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인 '청렴해피콜'과 '청렴지킴이 문자서비스'를 등의 안내를 강화한다.

곽지혜 기자

정준호 "체계적인 아동 돌봄 환경 조성 노력"

정준호(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안 사항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지역아동센터 회원들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보편적 제공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관련



아동복지법과 제도 개선 △초등 아동 돌봄체계 통합과 지원 강화 △다문화 및 이주배경 아동·경계선 및 장애아동·농어촌 아동 돌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초등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

다'라는 속담처럼 아이가 자라려면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의 실질적인 안식처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동과 양육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체계에 더욱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권향엽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지지 선언"

전·현직 여성국회의원이 권향엽(사진)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후보를 지지했다.

3일 권 후보 캠프에 따르면 전남 김상희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신낙균 전문회관장부장관, 이미경 전 국회의원, 신명전 한국여성정의상임대표 등이 권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와 함께 전남지역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선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상희 의원은 "전남 지역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단순히 인물의 선출을 넘어, 지역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권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 발

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돕고 싶다"고 말했다.

신낙균 전 장관 역시 "여성 정치인의 활약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권 후보의 성공을 기원했다.

권 후보는 "방문해주신 선배님들은 저의 정치 멘토이시면서 여성 리더십을 알려주신 분들"이라며 "이곳 광양까지 직접 오셔서 응원을 해주신 너무 감사하고 총선 승리로 이 소중한 마음들을 갖고 싶다"고 화답했다.

곽지혜 기자



비례대표 투표용지 검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3일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구선관위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 등을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옥중 방송연설' 허용

법무부가 구치소 수감 중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송영길(사진) 소나무당 대표의 방송연설 녹화를 승인했다.

3일 소나무당에 따르면 송 대표는 서울 구치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연설 녹화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내부 규정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했다.

선관위도 선거법에 따라 옥중 방송연설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소나무당과 방송연설 계약을 맺은 KBS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장면을 촬영한 뒤 4일과 9일 오후 7시30분부터 10분 간 방송할 예



정이다. 8일 오전 8시48분부터는 KBS광주방송총국 1라디오를 통해서도 송 대표의 방송연설을 송출한다.

한편 송 대표는 최근 선거운동을 위해 법원에 보석 석방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단식과 함께 재판 불출석을 지속했다.

그가 출마한 광주 서구갑에서는 현재 송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와 딸, 아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